

“마세라티는 시선 느끼는 하차감이죠”



이주영 마세라티 광주지점장

“독일 3사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너무 많다보니 식상하죠. 소비자들은 차별화 되길 원하고, 그 대안으로 럭셔리가 마세라티에 주목하고 있어요.”

호남지역 마세라티 선봉장 이주영(37) 광주지점장은 “마세라티는 하차감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자동차”라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마세라티는 일명 ‘하차감’ (하차 시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월감을 주는 차다. 고급스러움과 럭셔리한 브랜드 이미지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브랜드 명성에 걸맞게 차량의 외관 디자인

‘도깨비’가 선택한 자동차
럭셔리 이미지 대체 불가
배기음·시트커버 환상적

인은 압도적이다. 드라마 ‘도깨비’ 주인공들이 선택한 자동차다.

이 지점장은 ‘독일차 돌풍’에 맞설 전략을 묻자 방긋 웃었다. 오히려 독일차가 많이 팔려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마세라티에 기회가 온단다. 소비자들은 독일차 다음으로 마세라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 그는 “10년 전만 해도 벤츠가 지나가면 ‘와 벤츠다’라며 동경의 시선을 보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한 달이면 200대가 팔리니 수입차 중 가장 흔한 차가 돼버렸다”면서 “수입차는 타 본 사람이 탄다.

독일차가 흔해지면 자산가들은 더 비싼 수입차에 관심을 돌리고, 그 심리를 공략하는 게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장을 찾는 고객을 보면 독일차를 두 번 정도 탄 뒤 그 다음 차를 마세라티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했다.

이 지점장은 영업맨이다. 12년 영업 경력 가운데 절반인 6년 연속 판매왕을 차지했다. 그래서 영업맨들의 심정과 고충을 잘 안다. 그의 경영철학은 ‘즐거자’다. 영업맨이 즐거워야 맨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8월 광주전시장 오픈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월 평균 10대가 팔린다. 올해 590마력의 신차 르반떼 트로페오가 출시돼 판매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세라티의 자랑거리는 ‘파워’다. 마세라티의 DNA는 레이싱이라한다. 스포츠카

에서 시작해 세단으로 라인업을 확장한 것이 독일차와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자랑은 ‘배기음’과 ‘시트 커버’다. 이 지점장은 “배기음이 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의 노래와 어울린다. 시트 커버는 이탈리아 신사복처럼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정성들여 제작한다”며 “마세라티의 전통”이라고 소개했다.

마세라티 광주지점은 ‘르반떼 트로페오’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7일 ‘슈퍼 SUV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진행한다. 광주 전시장에서 르반떼 트로페오, 르반떼 GTS 등 마세라티의 초고성능 슈퍼 SUV 라인업을 직접 시승해 볼 수 있는 기회다. 특히, 국내에서 10대만 한정 판매되는 르반떼 트로페오의 독보적인 성능과 이탈리아 감성을 체험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304km 폭풍질주’ 슈퍼 SUV ‘르반떼 트로페오’ 국내 상륙

590마력에 제로백 3.9초

레이싱 혈통 내외관 디자인

최고출력 590마력, 최고속도 304km, 마세라티 ‘르반떼 트로페오’가 폭풍같은 질주 본능을 품고 국내에 상륙했다. 마세라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라인업의 최상급 모델이다.

2016년 르반떼 출시 전 기획한 트로페오는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프로토타입 모

델로 제작돼 세계에서 가장 험한 기상 조건과 도로 환경 시험을 거친 차량이다.

트로페오는 마세라티의 플래그십 세단 카트로포르테 GTS의 530마력 V8엔진을 재설계해 6250rpm에서 폭발적인 590마력의 최고 출력을 끌어낸다. 마세라티 역사상 가장 강력한 V8엔진으로, 페라리의

마라넬로공장에서 공동 생산된다. 특히 페라리 파워트레인 개발팀과 수작업으로 제작한 엔진은 실린더 뱅크에 신텐터보차저를 하나씩 설치하는 트윈터보차저 디자인과 고압 직분사 방식을 채택해 반응이 빠르고 효율적이다.

트로페오는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

인 제로백 3.9초, 최고속도 304km/h를 자랑한다. 트로페오에만 허락된 새로운 ‘코르사’ 주행 모드는 최대 가속 성능을 발휘해 독보적인 스포츠카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코르사 모드를 실행하는 즉시 신속한 기어변속, 낮은 에어 서스펜션, 스카이록 댐핑, 4Q 사륜구동 시스템 등으로 맹렬한 파워를 발휘한다.

트로페오는 뒤 차축에 기계식 자동제한장치(LSD)가 장착됐다. 모든 노면 상황에서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유다. 향상된 세시는 안전성을 극대화시키면서 놀라운 가속 성능을 발휘하고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함을 제공해준다. 특히, 차량 전후 무게를 50 대 50으로 완벽하게 배분할 뿐 아니라 동급 차량 대비 가장 낮은 무게중심을 구현했다.

전륜에 더블 위시본과 후륜에 멀티 링크 서스펜션 레이아웃은 슈퍼카 수준의 정밀한 핸들링과 탁월한 조종 안정성을 보장해준다는 평가다. 에어 스프링 공기압축 시스템은 총 6단계의 차량 높이 레벨을 제공한다.

트로페오는 르반떼 GTS와 함께 마세라티 SUV 모델 최초로 통합 차체 컨트롤을 전자식 주행 안전 장치에 도입했다. 차량 제어 능력 상실을 방지하는 통합 차체 컨트롤은 차체의 움직임이 불안정할 시 즉각적으로 엔진 토크를 낮춘다.

트로페오는 새롭게 스타일링한 내·외관

으로 최상급 슈퍼 SUV에 걸맞은 레이싱 혈통을 드러낸다. 기능적 요소까지 겸비한 디자인은 그랜드투어러의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갖추면서도 공기 역학적 효율을 향상시켜 0.33의 공기저항계수를 자랑한다.

폭풍 같은 질주 본능을 품은 외관은 ‘블랙 피아노’ 색상의 더블 수직바를 사용한 전면 그릴로 공격적인 디자인에 초점을 맞췄다.

트로페오 전용으로 디자인한 보닛은 엔진 열을 식혀주는 배출구를 적용해 역동성을 강조했다. 프런트 펜더에는 마세라티의 상징인 3개의 에어 벤트가 자리를 잡았고, 후미로 갈수록 더욱 매끈해지는 루프 라인은 쿠페의 디자인 철학을 담았다는 분석이다.

전면에 풀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고급스러움을 연출해준다. 주변에 다른 차량이 감지될 경우 상대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헤드라이트의 방향을 즉시 조절해준다.

인테리어는 우아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꾸며졌다. 특히 최상급 피아노 피오레 천연 가죽으로 마감된 스포츠 시트와 도어 패널은 더블 스티칭으로 고급스러움을 자아낸다. 17개의 스피커와 1280W 출력의 바위스앤월킨스 하이엔드 사운드 시스템 등도 갖췄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대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